

## 5-6세 아동의 분배 결정에 내집단 선호가 미치는 영향\*

차 민 정

송 현 주<sup>†</sup>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만 5-6세 아동들의 타인-타인 또는 자신-타인 간 자원 분배 결정에 수혜자의 소속집단(내집단 대 외집단)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실험 1에서는 아동이 자원 분배의 수혜자가 되지 않고 친구(내집단)와 낯선 아동(외집단)에게 스티커를 나누어주는 분배자의 역할만을 수행한 게임을 진행하였다. 이 때 아동은 낯선 아동보다 친구에게 더 많은 스티커를 나누어주었고, 이는 아동 자신이 분배의 이해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내집단에게 더 호의적으로 분배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험 2에서 아동은 상대방이 친구 혹은 낯선 아동인 상황에서 자기 자신과 상대방에게 스티커 10개를 분배하는 게임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자기-타인 분배 상황에서 아동들은 상대방이 내집단 또는 외집단 구성원인지에 관계없이 이기적인 분배를 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자기 자신이 자원 분배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내집단을 선호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기존 성인 연구에서 관찰되어온 자원 분배 행동에서의 내집단 편향의 발달 과정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공한다.

주제어 : 분배 공정성, 내집단 선호, 독재자 게임

---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2-S1A3-A2033375)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sup>†</sup> 교신저자: 송현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구 분야: 발달 심리학

Tel: 02-2123-2449, E-mail: hsong@yonsei.ac.kr

## 서론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그룹보다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의 일원에게 더 유리하게 행동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성향이 극단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집단 간 갈등으로 번지기 쉬우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다양한 집단, 사회계층 간에 분배하는 데 있어 다양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정도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며, 외집단보다 내집단에게 유리한 분배를 하는 것이 자신의 생존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집단 편향성은 분배행동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다(Brewer, 2001).

실제로 성인들은 외집단 구성원보다 내집단 구성원에게 자원을 더 많이 분배하는 경향성이 있음이 기존 연구에서 검증되어 왔다. 우선 한정된 자원을 타인 간에 분배해야하는 상황(타인-타인 분배)에서 성인들은 전형적으로 내집단 구성원에게 자원을 더 많이 분배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무작위로 집단을 나눈 후 상대방에게 실험이 끝난 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점수를 분배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집단 간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보다는 자신이 속한 그룹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Dobbs & Crano, 2001). 또한, Billig와 Tajfel(1973)은 성인들이 같은 그림을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사실만으로도 내집단과 외집단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분배게임을 진행한 결과 참가자들은 같은 그림을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점수를 나누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실험에서 취향이 같은 참가자들끼리 팀을 형성했을 때, 취향이 같지 않은 참가자들끼리 팀을 형성했을 때보다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더 분배하는 경향성을 보였다(Falk, Heine, & Takemura, 2014). 이러한 분배에서의 내집단 편향은 충성심(loyalty)이 점화되는 등 내집단 소속감이 증가할 때 더욱 현저하게 드러나게 되고(Hertel, & Kerr, 2001), 반면 자신의 소속 집단 구성원이 내집단 소속원에게보다 타 집단 소속원에게 우호적인 분배를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경우에는 내집단에 대한 자기동일시 정도가 감소되기도 한다(Platow, Grace, Wilson, Burton, & Wilson, 2008).

이러한 타인-타인 분배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원 수혜자로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자신-타인 분배 상황에서도 내집단에게 유리한 분배를 하는 경향성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원을 상대방에게 나누어 줄 경우 자신의 자원이 감소할 수 있는 비용(cost) 발생 상황에서도 성인들은 상대방이 외집단 소속일 때 보다는 내집단 소속원일 때 우호적인 분배를 한다(Balliet, Wu, & De Dreu, 2014). Yamagishi와 Mifune(2008)은 동일한 그림에 대한 선호도와 같은 최소집단 패러다임(minimal group paradigm; Tajfel, Billig, Bundy, & Flament, 1971)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참가자들을 두 가지 다른 집단으로 구분하여 서로 독재자 게임을 하게 하였다. 독재자 게임(dictator game)에서는 두 명의 경기자(player)가 일회성 게임에 참여하여, 한 명은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하는 제안자의 역할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자원을 분배 받는 응답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에서 참가자들은 상대방이 자신이 속한 집단이었을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실험에서 참가자들을 무작위로 집단을 나누어 서로 토론을 시킨 뒤, 상대방에게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게임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외집단보다는 내집단에게 금액을 더 많이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 자신-타인 분배 상황에서도 내집단 편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Buchan, Johnson, & Croson, 2006).

이러한 분배 상황에서의 내집단 편향성은 어떤 발달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것일까? 기존 연구들은 영아들과 아동들에게서도 내집단에 대한 선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남을 보여왔다. Hamlin 등은 9개월과 14개월 영아들이 자신과 다른 취향을 가진 개인보다 비슷한 취향을 가진 개인에게 더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Hamlin, Mahajan, Liberman, & Wynn, 2013). 또한, 15개월 영아들은 일반적으로 불공평한 분배자보다 공평한 분배자를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경향성은 불공평한 분배자가 자신과 다른 인종의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었을 경우 더 크게 나타났다(Burns, & Sommerville, 2014). 이렇게 내집단을 더 선호하는 경향성은 좀 더 연령이 높은 아동들에게서도 발견된다. 5세 아동들에게 웃는 얼굴과 슬픈 얼굴을 제시하며 이것을 사용해 얼마나 각 그룹이 좋은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아동들은 외집단보다 내집단을 더 좋아한다고 보고하였다(Nesdale, & Flessner, 2001). 또한, 5-6세 아동들은 외집단보다 내집단에게 부정적인 물

건(예> 거미)을 주지 않고 긍정적인 물건(예> 과자)을 주는 모습을 보이는 등 내집단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Buttelman, & Bohn, 2014).

이러한 아동들의 내집단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분배 상황에서도 드러난다. Olson과 Spelke(2008)는 아동들로 하여금 인형들끼리의 자원분배를 도와주는 과제를 하도록 하였다. 아동들은 주인공 인형이 친구, 형제 혹은 모르는 인형에게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타인-타인 분배 과제를 실시하였고, 또한 주인공 인형이 주인공의 내집단에게 더 많은 자원을 나누어주도록 하는 결정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신의 자원 손실을 감수하면서 분배해야하는 자신-타인 분배 상황에서도 아동들의 내집단 편향성은 존재한다. Fehr, Bernhard 그리고 Rockenbach(2008)은 8세 아동들이 2개의 과자를 자신과 상대방 간에 나누어야할 때 상대방이 외집단의 불특정 일원일 때는 자신이 과자를 다 갖겠다는 선택(2,0)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내집단의 불특정 일원일 경우에는 자신의 과자를 상대방과 공평하게 나누겠다(1,1)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상대방이 익명의 불특정 인물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물일 경우에는 더 어린 아동들도 친구가 아닌 낯선 아동에 비해 친구에게 더 자원을 많이 분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Fehr 등(2008)과 유사하게 아동들에게 스티커 2개를 자신이 혼자 다 가질 수도 있고(2,0) 아니면 상대방과 하나씩 나누어 가질 수(1,1) 있는 선택을 해야 할 때 4.5~6세 아동들도 상대방이 외집단보다는 내집단일 경우에 (1,1)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Moore, 2009). 즉, 낯선 타 아동보다는 친구에게 자신의 스티커를 나누어 주려는 경향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대방이 내집단 구성원인지 여부에 따라 아동의 분배가 달라지는지를 추가 검증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전형적으로 주로 2~4개의 매우 개수가 적은 자원을 아동이 분배하게 하는 과제들을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스티커를 아동이 타인 간에 또는 자신과 타인 간에 분배하도록 하였다. 적은 자원을 분배하는 것과 비교적 많은 자원을 분배하는 상황은 매우 다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Webster, 2003). 예를 들어, Moore(2009)과 Fehr 등(2008)에서는 2개라는 매우 적은 자원을 사용했는데, 2개를 나누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상대방이 1개를 갖거나 혹은 전혀 갖지 못

하는 경우밖에 없으므로, 아동들은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고려하였다기보다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자원을 줄 것인지 여부를 고려했을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상대방에게 몇 개를 분배해야겠다는 수량에 대한 고려를 한 것이 아니라, 분배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자원분배 방식으로 인해 아동들이 내집단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집단이 자원을 하나도 가지지 않은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동기로 인해 내집단에게 유리한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3-4세의 어린 아동들도 상대방의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지만, 자신이 자원의 수혜자가 되는 분배의 경우,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는 경향성은 학령기에 가까워져야 나타나는 고급 인지 발달 기제이다(Almas, Cappelen, Sorensen, & Tungodden, 2010).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동들은 만 3세에 이미 공평한 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는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동에서는 공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Smith 등(2013)은 3-8세 아동을 대상으로 자신과 상대방 아동에게 스티커를 얼마나 나누어 줘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7-8세의 아동들만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였고, 더 어린 아동들은 스티커를 이기적으로 분배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막상 자신이 스티커 분배의 수혜자가 되는 상황에 놓이자 공평성에 대한 도덕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불공평하게 분배한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 아동들일수록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상대방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Blake, & Rand, 2010). 이와 같이, 아동들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며 내집단에게 유리하게 행동하는 것은 이익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비교해 어려운 과제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의 기존 문헌(e.g, Moore, 2009)에서 주 연구 대상이었던 만 5-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좀 더 많은 자원의 분배를 통해 상대방의 소속 집단이 아동들이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가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원의 개수로 스티커 10개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10개라는 자원의 양은 만 5-6세 아동들이 보편적으로 어려워하지 않고 셀 수 있는 숫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존 성인 분배연

구에서도 일반적으로 \$10를 선정하여 분배 행동을 측정하며(Bolton, Katok, Zwick, 1996), 국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분배 연구 중에서도 10개의 스티커를 사용한 연구(유하나, 이지현, 송현주, 김영훈, 2014)가 존재하는 등 일반적으로 10개라는 자원의 양이 분배 연구에서 사용하는 적절한 자원의 양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아동 자신이 자원 분배의 수혜자가 되는지 여부가 분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만 5-6세 아동이 자신이 자원의 수혜자가 되는지 여부가 분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고, 이러한 이해가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분배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요 문제였다. 타인-타인 간 분배 상황에서 아동들이 내집단 편향성을 보임을 보고한 Olson과 Spelke(2008)의 실험에서는 자원을 나누어주는 주체 및 객체가 모두 가상의 인형이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자신이 분배의 주체가 되고 분배의 객체 역시 실제 아동의 소속 집단 또는 다른 소속 집단의 아동에게 분배를 하는 과제를 사용하여, 아동이 가상 상황이 아닌 실제의 분배 상황에서도 내집단 편향성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험 상황에서 아동은 자신이 자원의 수혜자가 되지 않은 경우(실험 1), 또는 수혜자가 되는 경우(실험 2)에서 각각 스티커를 나누어주는 제안자 역할을 하였다. 분배의 수혜자인 상대방으로는 참가 아동이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내집단 조건)와 참가 아동과 다른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가상의 아동(외집단 조건)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1과 2의 결과를 비교하여 좀 더 많은 양의 자원을 사용하였을 때, 아동들이 자신이 분배의 수혜자가 아닌 분배자만이 되는 상황과 수혜자도 되는 상황 간에 자원 분배의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 실험 1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실험에는 만 5-6세 아동 17명(평균 월령: 68.7개월, 월령 범위: 61.2~83.8개월, 남아 10명, 여아 7명)이 참가하였다. 연구 참가 아동은 서울 및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육아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여 모집하였다.

#### 실험 자극

본 실험에는 가로 90cm, 세로 60cm의 바닥이 검은색인 테이블이 사용되었다. 분배의 수혜자인 상대방의 이름표가 실험 자극으로 사용되었는데, 내집단 소속으로는 아동이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이름을, 외집단 소속으로는 “세연 유치원”이라는 가상의 유치원 이름을 사용하였다. 만약 아동의 유치원 이름에 “세연”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도록 준비하였다. 따라서 집단 소속에 따른 유치원 이름표 2개, 가로 및 세로가 각각 16cm인 두 개의 접시, 주황색 하트 스티커 10개, 자주색 하트 스티커 10개가 사용되었다. 스티커는 유치원이



그림 1. 실험 1에서 사용된 자극의 예시

나 학교 등에서 아동에게 주는 보상물로 자주 사용되며, 이미 아동을 대상으로 분배 게임을 진행한 선행 연구에서 스티커를 자원으로 사용하여 스티커가 아동에게 있어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작용한다는 타당성을 검증받았다(Gummerum, Hanoch, Keller, Parsons, & Hummel, 2010).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분배할 자원으로 스티커를 사용하였다. 그림 1은 실험 1에 사용된 자극의 예시이다.

### 절차

실험은 서울 소재 모 대학교 실험실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절차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승인 받은 참가 동의서를 사용하였다. 보호자는 실험에 대한 소개와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 참가 아동들은 실험자 및 실험실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하여 대기실에서 실험자들과 함께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 아동은 환경에 적응한 후, 실험자와 함께 독립된 실험 공간에 들어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아동에게는 내집단과 외집단 소속 이름표가 동시에 제시되었고, 내집단과 외집단 소속 이름표의 좌우 위치는 역균형화 되었다. 내집단 소속은 참가 아동 자신이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외집단 소속은 아동의 소속 유치원이 아닌 “세연 유치원” 이름표를 사용하였다. 유치원 이름표 앞에는 각각 접시가 하나씩 놓였으며, 아동은 이름표와 접시를 마주 보고 앉았다. 참가 아동은 이름표에 적힌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스티커 10개를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하는 분배자 게임에 총 1회 참여하였다. 먼저, 실험자는 아동에게 이름표에 적힌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과 스티커 게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후, 주황색 혹은 자주색 하트 모양 스티커 10개를 나누어주었다. 시행 간에 다른 색의 스티커를 사용한 이유는 스티커 색이 변경될 경우 아동들이 과제에 대해 흥미를 계속 가질 수 있게 도울 수 있을 거라 추정했기 때문이며, 두 가지 색의 스티커 제시 순서는 역균형화 되었다. 실험자는 아동과 함께 스티커를 세며 10개라는 것을 확인시킨 뒤, 이 중 내집단 소속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에게 주고 싶은 만큼 스티커를 해당 아동 이름표 앞에 있는 접시에 놓으면 되고, 외집단 소속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스티커는 해당 아동 이름표 앞에 있는 접시에 놓으면



된다고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실험자는 각 집단의 소속을 오른쪽에 놓인 이름표부터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내집단과 외집단 소속의 이름표가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경우, “앞에 있는 아이는 ‘XX 유치원’(현재 아동이 다니고 있는 곳)에 다니고 있는 아이야. 앞에 있는 아이는 OO이랑 같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네!”라고 말한 뒤, “앞에 있는 아이는 ‘세연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야. 앞에 있는 아이는 OO이랑 다른 유치원에 다니고 있네!”라고 말해주었다. 실험자는 아동이 상대방 아동들에게 줄 스티커를 각각 어느 접시에 놓아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 질문을 하였고, 아동이 원하는 대로 스티커를 놓도록 지시하였다. 아동이 스티커를 배분하는 동안 실험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 아동이 분배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다.

## 결 과

예비 분석 결과, 참가 아동이 내집단 혹은 외집단에게 나누어준 스티커 개수에 대해 아동의 성별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F(1, 15) = 0.00, p = 1.00$ ).

조건에 따라 아동이 나누어준 스티커 개수에 차이가 있는지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조건 간 나누어준 개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16) = 2.345, p = .032$ ). 내집단 조건의 아동은 상대방에게 평균 6.12개의 스티커를 나누어주었고( $SD = 1.96$ ), 외집단 조건의 아동은 평균 3.88개의 스티커를 나누어주어( $SD = 1.96$ ), 이와 같이 제 3자 분배 방식을 취한 결과 내집단과 외집단에 따라 이뤄진 분배에 차이가 존재했다(그림 2).

그림 3은 집단에 따른 아동들의 자원 분배의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실험 1의 내집단과 외집단의 분배 분포에는 큰 차이가 있었으며, 내집단의 경우 분배 분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친 반면, 외집단의 경우 분배 분포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나타냈다. 내집단의 경우 가장 많이 일어난 분배는 5개씩 동등하게 나누어주는 분배였고(52.9%), 그 다음으로는 내집단에게 6개를 나누어주는 분배와 10개 전부를 나누어주는 분배가 각각 17.6%로 많이 일어났다. 외집단의 경우 가장 우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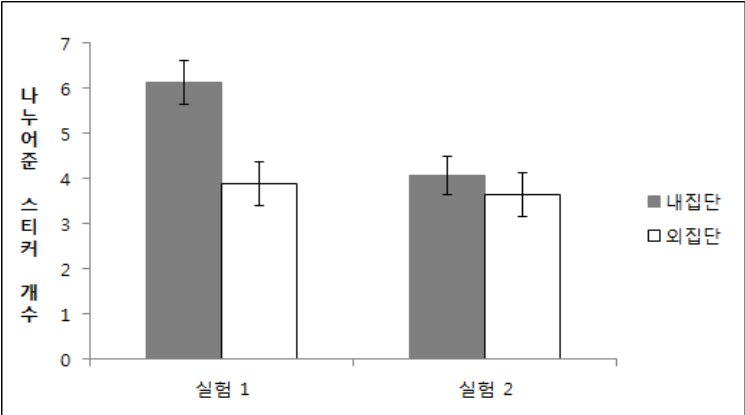


그림 2. 5-6세 아동들의 내집단/외집단에 대해 분배한 평균 자원의 수

분배는 마찬가지로 5개를 동등하게 나누어주는 분배였으며(52.9%), 그 다음으로는 0개와 4개를 주는 분배가 각각 17.6%로 빈번하게 나타났다. 즉, 두 조건 모두에서 가장 우세한 반응이 상대방 사이에 5개씩 나누어주는 동등한 분배였지만, 그 다음으로 우세한 반응에서 아동은 외집단보다는 내집단에게 더 분배를 많이 하는 경향성을 보여 차이가 나타났다. 내집단의 경우, 자원을 하나도 나누어주지 않은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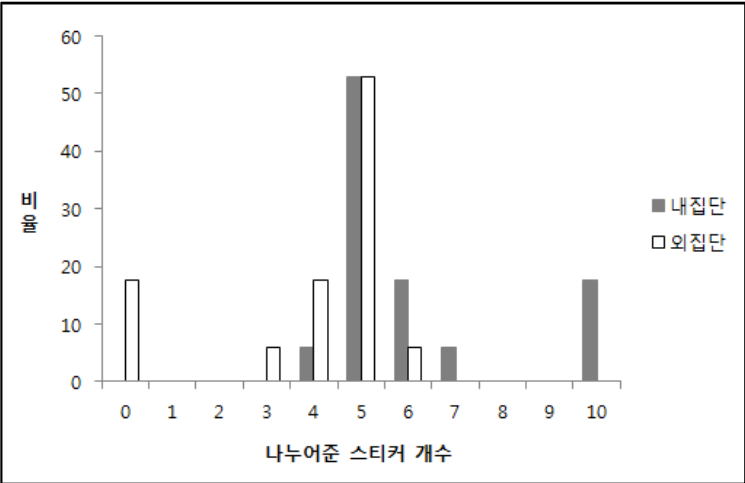


그림 3. 실험 1에 참여한 아동들이 제안한 자원 분배의 분포

의 비율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외집단의 경우에는 17.6%의 아동이 자원을 하나도 분배하지 않는 선택을 하였다.

Takagishi 등(2010)이 분석한 바에 의거하여, 0~4개를 나누어주는 것을 ‘불공평 분배’, 그리고 6개 이상을 나누어주는 경우를 ‘이타적인 분배’로 정의하여 내집단과 외집단 집단 간에 불공평 분배와 이타적인 분배를 한 참가자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집단에게 41.4% 아동이 이타적 분배를, 5.9%의 아동이 불공평 분배를 보인 반면, 외집단에게는 5.9% 아동이 이타적 분배를, 41.4%의 아동이 불공평 분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 자신의 이득이 개입되지 않고 분배자의 역할만을 부여받은 제 3자 분배 상황에서 내집단과 외집단을 고려해서 자원을 분배하려는 경향성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 실험 2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실험에는 만 5-6세 아동 16명(평균 월령: 69개월, 월령 범위: 60.2~82.7개월, 남아 10명, 여아 6명)이 참가하였다. 연구 참가 아동은 서울 및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육아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여 모집하였다.

#### 실험 자극

실험 1과 자극이 동일하였다. 따라서 집단 소속에 따른 유치원 이름표 2개, 가로 및 세로가 각각 16cm인 두 개의 접시, 주황색 하트 스티커 10개, 자주색 하트 스티커 10개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그림 4는 실험 2에 사용된 자극의 예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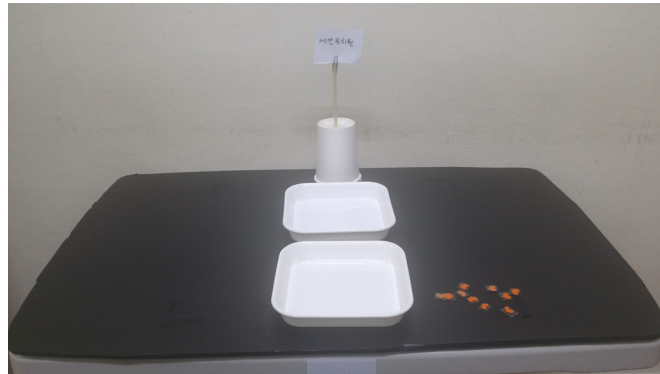


그림 4. 실험 2에서 사용된 자극의 예시

#### 절차

아동이 스티커를 내집단과 외집단에게 나누어주는 분배자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스티커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험 1과 절차가 유사하였다. 따라서 실험 1에서처럼 내집단과 외집단 소속 이름표가 아동에게 동시에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내집단 소속 이름표와 외집단 소속 이름표가 각각 하나씩 순서대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아동은 내집단 조건과 외집단 조건에 번갈아가면서 순서대로 실험에 참여하였고, 내집단과 외집단 조건의 순서는 역균형화되었다. 내집단 조건에서 아동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소속 유치원 이름표를 마주 보고 앉았으며, 유치원 이름표와 아동 앞에는 각자의 접시가 놓였다. 외집단 조건에서 아동은 자신의 소속 유치원이 아닌 “세연 유치원” 이름표를 마주 보고 앉았다. 실험자는 유치원 이름표 뒤에 앉아 실험을 진행하였다. 아동은 자신과 이름표에 적힌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 스티커 10개를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하는 독재자 게임(Harbaugh, & Krause, 2000)에 내집단과 외집단 조건마다 각 1회 참여하였으며, 따라서 총 2회 참여하였다. 모든 참가 아동은 제안자 역할을 하였다. 먼저, 실험자는 아동에게 이름표에 적힌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과 스티커 게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후, 주황색 혹은 자주색 하트 모양 스티커 10개를 나누어 주었다. 실험자는 아동과 함께 스티커를 세며 10개라는 것을 확인시킨 뒤, 이 중

참가 아동 자신이 가지고 싶은 만큼의 스티커는 아동 앞에 있는 접시에 놓으면 되고 다른 아동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스티커는 이름표 앞에 있는 접시에 놓으면 된다고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실험자는 내집단/외집단 조건에 따라 이름표의 소속을 강조하였다.

## 결 과

예비 분석 결과, 참가 아동이 내집단 혹은 외집단에게 나누어준 스티커 개수에 대해 아동의 성별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F(1, 14) = .785, p = .391$ ), 성별은 이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조건에 따라 아동이 나누어준 스티커 개수에 차이가 있는지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조건 간 나누어준 개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15) = 1.131, p = .276$ ). 내집단 조건의 아동은 상대방에게 평균 4.06개의 스티커를 나누어주었고( $SD = 1.77$ ), 외집단 조건의 아동은 평균 3.63개의 스티커를 나누어주어( $SD = 1.96$ ), 외집단에 속해 있는 상대방에 비해 내집단에 속해 있는 상대방에게 아동이 유의미하게 더 많은 자원을 나누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그림 5는 조건에 따른 아동들의 자원 분배의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내집단 조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분배의 형태는 상대방에게 5개를 나누어주어 자신과 상대방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이었고 참가 아동의 56.3%가 이러한 분배행동을 보였다. 또한, 그 다음으로 많이 일어난 분배는 3개를 주는 것(25.0%)이었다. 외집단 조건에서도 유사하게 상대방에게 자원을 5개를 주는 분배가 가장 많이 일어났고(37.5%), 그 다음으로 많이 일어난 분배는 4개를 주는 것(25.0%)이었다. 내집단과 외집단에게 보인 공평 분배(자원을 5개를 주는 분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 일원 피험자 내 변량 분석 결과, 조건에 따라 공평 분배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이 나타났다 ( $F(1,15) = 1.311, p = .270$ ).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10개의 자원 중 상대방에게 0~4개를 나누어주는 것을 ‘불공평 분배’, 5개를 나누어주는 것을 ‘공평 분배’, 그리고 6개 이상을 나누어준 것을 ‘이타적 분배’라고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상대방에게보다 자신에게 더 많이 나눠주는 불공평한 분배를 한

비율은 내집단 조건에서 37.6%, 외집단 조건에서는 56.3%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보다 상대방에게 더 많이 나누어준 아동, 즉 이타적인 분배를 한 비율은 내집단 조건에서는 6.3%, 외집단 조건에서는 6.3%로 매우 낮은 분포를 보여, 실험 1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분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 이항분포를 사용한 McNemar 검증 결과, 조건에 따라 분배 패턴(공평 또는 이타적 분배, 불공평 분배)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이 나타났다( $N = 16, p = .257$ ).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는 분배 상황에서 아동 자신이 자원의 이해 당사자가 되지 않는 실험 1과 달리, 수혜자의 입장이 된 실험 2에서 아동의 분배행동에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이득이 개입되지 않는 제 3자 분배 상황에서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고려해서 분배하는 반면, 아동이 자원의 수혜자가 되는 경우, 내집단과 외집단을 고려하는 것 보다 자신의 이득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성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 자신이 자원의 수혜자가 되는 상황에서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고 자신이 손해 보는 분배를 회피하려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1의 결과와 달리 실험 2에서 내집단과 외집단 간의 분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실험 2가 아동에 더 복잡한 인지적인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즉, 실험 2의 경우 아동은 ‘본인’을 하나의 ‘내집단’으로, 그리고 본인 이외의 상대방을 ‘외집단’으로 생각하고 보다 상위수준의 집단 구분(같은 유치원-다른 유치원)까지 고려하기에는 인지적인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집단에 따라 분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해보기 위해 내집단 조건과 외집단 조건을 통합하여 자료를 분석해보았을 때, 아동 자신에게 할당한 스티커 개수는 6.16개( $SD = 1.85$ )였고, 상대방에게 분배한 스티커 개수는 3.84개( $SD = 1.85$ )였다. 이때 아동이 자신과 상대방에게 나누어준 스티커 개수에 차이가 있는지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나누어준 개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31) = 3.534, p = .001$ ). 이는 실험 1의 내집단, 외집단 소속원에 대한 분배 양상과 비슷하며, 상대방의 소속에 상관없이 분배 상대방을 외집단원으로 고려했을 가능성을 지지한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 아동들이 상대방의 소속집단에 대한 민감성이 전혀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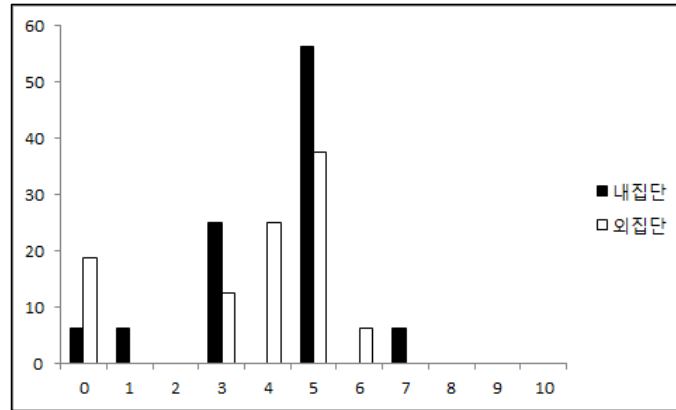


그림 5. 실험 2에 참여한 아동들이 제안한 자원 분배의 분포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내집단 조건과 외집단 조건 각각에서 아동이 상대방에게 분배한 스티커 개수를 공평한 분배 개수인 5개와 단일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집단 조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t(15) = -2.120, p = .051$ ), 외집단 조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15) = -2.803, p = .013$ ). 이는 실험 2에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내집단에서만 공평한 분배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실험 2의 결과를 실험 1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외집단의 경우 아동은 실험 1에서 평균 3.88개를 나누어주었고, 실험 2에서는 평균 3.76개를 나누어 주어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외집단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내집단의 경우 아동은 실험 1에서 평균 6.12개를, 실험 2에서는 4.06개를 나누어 주어, 자신이 수혜자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상대방의 집단 소속을 고려해서 분배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실험 1과 실험 2에서 외집단과 내집단에게 아동이 나누어준 개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표본  $t$  검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외집단의 경우에는 두 실험 사이에 스티커를 나누어 준 개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t(32) = -.174, p = .863$ ), 내집단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32) = -3.257, p = .003$ ) (그림 2).

## 종합 논의

본 연구는 한국의 만 5-6세 아동을 대상으로 분배 게임을 진행하여, 좀 더 많은 자원의 분배를 통해 아동이 분배의 수혜자가 되는지 여부가 아동의 내집단 편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 1은 아동이 분배의 수혜자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 5-6세 아동이 상대방의 소속을 고려하여 분배행동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상대방이 내집단에 속해 있었던 조건에서 실험한 아동들은 외집단에 속해 있었던 조건에서 실험한 아동들에 비해 상대방에게 더 이타적으로 자원을 분배하였다. 즉, 자신이 자원 분배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지 않은 경우, 외집단인 상대방보다 내집단인 상대방에게 만 5-6세 아동들이 더 이타적으로 자원을 분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분배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아동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아동들이 분배행동을 다르게 보인다는 기존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반면, 아동이 분배의 수혜자 입장이 되는 상황을 사용한 실험 2에서 아동들은 내집단과 외집단인 상대방에게 나누어준 자원의 개수나 분배 분포(불공평 분배 또는 이타적 분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이 자원 분배의 이해 당사자가 될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을 고려하지 않고 분배 결정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실험 2의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도 자기-타인 분배 상황에서도 내집단 편향성을 나타낸다는 결과(e.g., Olson, & Spelke, 2008)와 반대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아동이 자원의 수혜자가 되는 경우에는 내집단 편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한 가지 가설은 어린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성인보다 더 이기적인 경향성을 나타내고(Sheskin, Bloom, & Wynn, 2014), 이것이 분배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Kogut(2012)는 만 5-6세 아동들은 공정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기적으로 나눔행동을 하였으며, 반면 만 7-8세 아동들은 상대방과 자원을 공정하게 나누었지만 공정하게 나누었을 때의 보고된 행복감이 낮았다. 아동들은 만 9-10세가 되어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더 분배를 많이 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공정하게 나누었을 때 기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만 5-6세 아동



들은 분배 상황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성으로 인해, 실험 2에서 아동 자신이 분배의 수혜자로 참여하였을 때 상대방의 소속을 고려하지 않고 분배 결정을 하는 모습을 성인보다 더 많이 나타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독재자 게임 방식을 이용한 기존의 연구에서 유사한 혹은 더 어린 아동들이 보인 내집단 편향을 설명해줄 수 없다.

다른 대안적 설명은 기존 연구보다 본 연구에서 더 많은 양의 자원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연구 결과의 차이를 도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2개의 스티커만을 사용하여 아동들에게 2가지의 분배 선택지만을 주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스티커를 사용하여 아동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분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는 자원을 상대방에게 줄 것인지, 혹은 주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제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나타난 내집단 편향성은 아동들이 내집단에게 더 많이 나누어주고 싶은 동기가 아니라 내집단이 자원을 하나도 가지지 않을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동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자원을 사용하였고, 자원의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집단 구성원에게 소수의 자원을 분배하여 상대방에게 자원이 전무한 상황을 모면하는 동시에 자신의 이익 극대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다. 즉, 아동들은 충분한 자원의 양을 제공받은 상황에서 자신이 그 자원 분배의 수혜자일 경우,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내집단에게 유리한 분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원 분배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실에서는 아주 적은 양보다는 충분한 양의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험 2의 결과가 생태학적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기존 아동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 소속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집단 분류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집단 소속에 따른 분배의 차이가 순수한 내집단 선호로 인한 현상인지 아니면 기존 내집단 일원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효과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아동들도 제비뽑기를 통해 팀을 나누는 것과 같이 일시적이고 임의적인 집단을 구분하였을 경우에도 역시 내집단에게 더 유리하게 분배를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Buttleman, & Bohn, 2014).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같은 패러다임에서도 최소집단 패러다임과 같이 임의로

집단을 나누었을 경우 내집단에 대한 우호적인 분배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들의 자원 분배에서 내집단 편향이 나타나는지 여부는 자신이 자원의 수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인다. 본 연구는 적은 자원을 가지고 단 한 유형의 분배 결정만을 살펴본 선행 논문들의 결과 (Fehr, Bernhard, & Rockenbach, 2008)에서 더 나아가 더 많은 수의 자원을 이용하여 아동이 분배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내집단에 대한 분배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령기 전 아동들에게 있어 자원 분배 이해의 발달 경로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어떤 상황적 요인이 아동의 친사회적 분배나 나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도덕성과 관련된 아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에 대해서도 유용한 관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유하나, 이지현, 송현주, 김영훈 (2014). 감정 고려가 만 4세 아동의 분배 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2), 113-129.
- Almås, I., Cappelen, A. W., Sørensen, E. Ø., & Tungodden, B. (2010). Fairness and the development of inequality acceptance. *Science*, 328, 1176-1178.
- Balliet, D., Wu, J., & De Dreu, C. K. W. (2014). Ingroup favoritism in cooperatio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40, 1556-1581.
- Billig, M., & Tajfel, H. (1973). Social categorization and similarity in intergroup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27-52.
- Blake, P. R., & Rand, D. G. (2010). Currency value moderates equity preference among young children.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31, 210-218.
- Brewer, M. B. (2001). Ingroup identification and intergroup conflict: When does ingroup love become outgroup hate? In R. D. Ashmore, L. Jussim, & D. Wilder (Eds.), *Social identity, intergroup conflict, and conflict reduction* (Rutgers Series on Self and Social

- Identity, Vol. 3, pp. 17-4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uchan, N., Croson, R., & Johnson, E. (2006). Let's get personal: an international examination of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Culture, and social distance on other regarding preference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60, 373-398.
- Burns, M. P., & Sommerville, J. A. (2014). "I pick you": The impact of fairness and race on infants' selection of social partners. *Frontiers in Psychology*, 5, 93.
- Buttelmann, D., & Bohm, R. (2014). The ontogeny of the motivation that underlies ingroup bias. *Psychological Science*, 25, 1-7.
- Dobbs, M., & Crano, W. D. (2001). Outgroup accountability in the minimal group paradigm: Implications for aversive discrimination and social identity theor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355-364.
- Falk, C. F., Heine, S. J., & Takemura, K. (2014). Cultural variation in the minimal group effec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5, 265-281.
- Fehr, E., Bernhard, H., & Rockenbach, B. (2008). Egalitarianism in young children. *Nature*, 454, 1079-1084.
- Gummerum, M., Hanoch, Y., Keller, M., Parsons, K., & Hummel, A. (2010). Preschoolers' allocations in the dictator game: The role of moral emotion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1, 25-34.
- Hamlin, J., Mahajan, N., Liberman, Z., & Wynn, K. (2013). Not like me = bad: Infants prefer those who harm dissimilar others. *Psychological Science*, 24, 589-594.
- Harbaugh, W. T., & Krause, K. (2000). Children's altruism in public good and dictator experiments. *Economic Inquiry*, 38, 95-109.
- Hertel, G., & Kerr, N. L. (2001). Priming in-group favoritism: The impact of normative scripts in the minimal group paradigm.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7, 316-324.
- Kogut, T. (2012). Knowing what I should, doing what I want: From selfishness to inequity aversion in young children's sharing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3, 226-236.
- Moore, C. (2009). Fairness in children's resource allocation depends on the recipient.

- Psychological Science*, 20, 944-948.
- Nesdale, D., & Flesser, D. (2001). Social identity an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group attitudes. *Child Development*, 72, 506-517.
- Olson, K., & Spelke, E. S. (2008). Foundations of cooperation. *Cognition*, 108, 222-231.
- Platow, M. J., Grace, D. M., Wilson, N., Burton, D., & Wilson, A. (2008). Psychological group memberships as outcomes of resource distribu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8, 835-851.
- Sheskin, M., Bloom, P., & Wynn, K. (2014). Anti-equality: Social comparison in young children. *Cognition*, 130, 152-156.
- Smith, C. E., Blake, P. R., & Harris, P. L. (2013). I should but I won't: Why young children endorse norms of fair sharing but do not follow them. *PLoS One*, 8, e59510.
- Tajfel, H., Billig, M. G., Bundy, R. P., & Flament, C. (1971). Social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149-178.
- Takagishi, H., Kameshima, S., Schug, J., Koizumi, M., & Yamagishi, T. (2010). Theory of mind enhances preference for fairnes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05, 130-137.
- Webster, G. D. (2003). Prosocial behavior in families: Moderators of resource shar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9, 644-652.
- Yamagishi, T., & Mifune, N. (2008). Does Shared Group Membership Promote Altruism? Fear, Greed, and Reputation. *Rationality and Society*, 20, 5-30.

1차원고접수 : 2015. 05. 29

1차심사완료 : 2015. 06. 19

게재확정일 : 2015. 06. 25

(Abstract)

## The influence of in-group favoritism on 5 to 6-year-olds' resource-allocation decisions

Minjung Cha

Hyun-joo Song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whether in-group bias affects 5- to 6-year-old children's resource-allocation decisions. In Experiment 1, participants were asked to allocate 10 stickers between a friend (an in-group member) and a stranger (an out-group member). Children allocated significantly more stickers to friends than to strangers, suggesting that they made distributive decisions in favor of their in-group members, when they were not the beneficiary of a resource-allocation. In Experiment 2, we examined whether being one of the recipients in the resource-allocation game would affect children's decisions. The procedure was identical to that of Experiment 1 except that participants were asked to allocate stickers between themselves and a friend or a stranger. The children showed selfish distributions regardless of recipient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when children become one of the recipients in a resource-allocation, their self-interests override their preference for in-group members.

*Key words : distributive justice, in-group favoritism, dictator game*